

하나됨과 나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십시오”

< 고린도전서 1장 3절 >

제 42 - 8 호

2025년 2월 23일

- 사랑방공동체 제 6차 총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총회 개회성수를 위해서 적극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방 모임은 3월 첫 주부터 시작합니다. 방별로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 멧쟁이학교 입학식이 오늘 오후 5시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멧쟁이학교 개강여행이 24일(월)~27(목)일까지 강원도 속초에서 있습니다.
- 아브라함 장막 동그라미 내부 변경 중에 있습니다.
- 독일에서 오신 패트릭 선생님이 오늘부터 11월까지 사랑방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합니다.
- 이사한 가정이 있습니다.

윤호중 집사 하경임 집사(산, 혜교) / 그루터기 포도나무동 2층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천상현 목사 · 손은실 사모 가정

강단을 꽃으로 : 김중필 집사 ( 생일 감사 )  
임은숙 집사 ( 감사 )

신협(헌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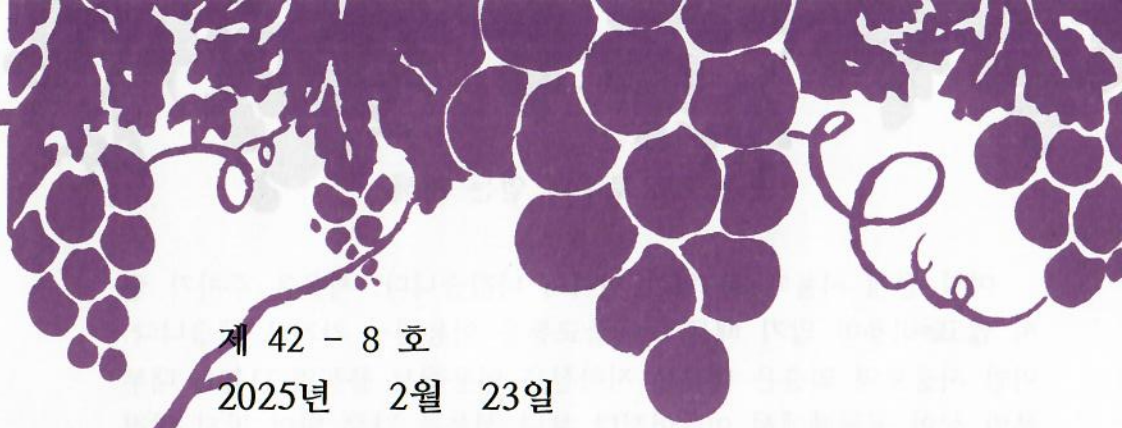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중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3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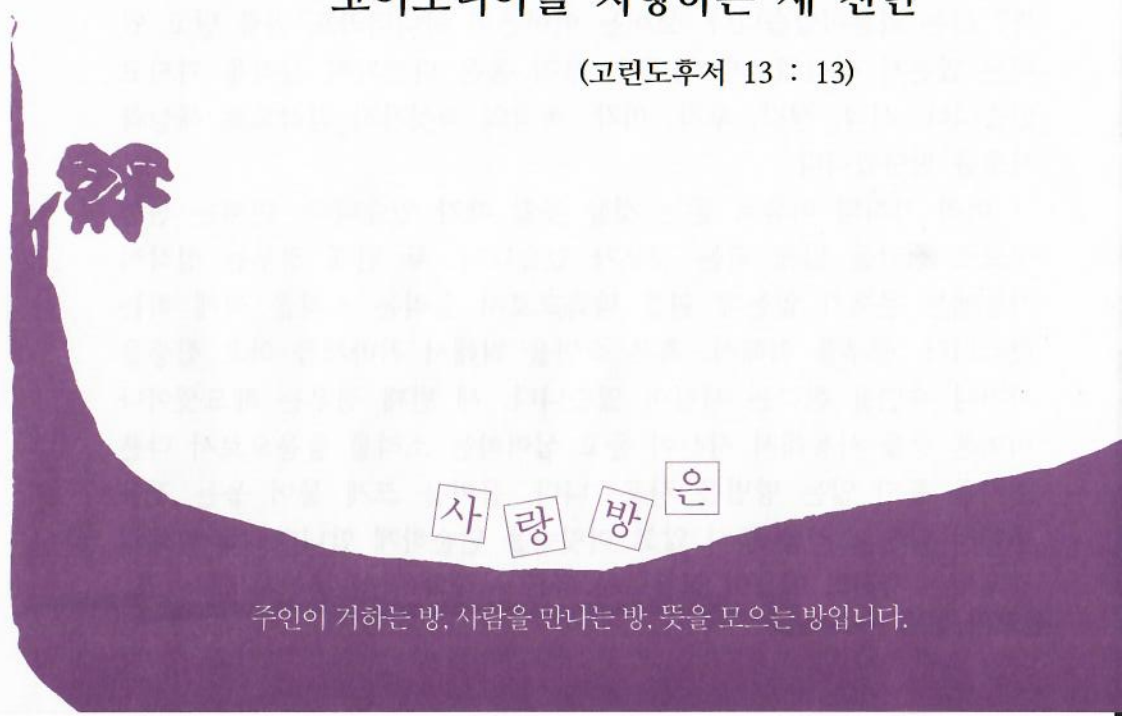


#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 듣는 것로부터 얻는 지혜

며칠 전에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습니다. 서울은 주차가 쉽지 않고 비용이 많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서울로의 외출은 대부분 지하철을 이용해서 움직였습니다. 대부분의 삶이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서울을 나갈 일이 많지 않거나 모임 위주의 외출은 차를 가지고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은 오래간만이었습니다.

이번 외출에서 눈에 띄게 느꼈던 것은 지하철에서 본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대중매체와 여러 나라의 지하철에서의 모습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은 익숙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더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는 사람이 무척이나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니 여러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귀에 저마다의 이어폰을 꽂고 있으면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보이는 이어폰이 아니더라도 귀를 달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보게 됩니다. 우리 몸은 다섯가지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다섯가지 감각으로 세상과 사물을 판단합니다.

여러 가지의 이유로 듣는 것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는 선천적으로 청각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청각적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데 귀를 막음으로서 들리는 소리를 적게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위해서, 혹은 숙면을 위해서 귀마개를 하고 집중을 하거나 숙면을 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헤드셋이나 이어폰 등을 사용해서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들음으로서 다른 소리를 듣지 않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음악을 크게 틀어 놓는 것을 통해서 다른 소리를 듣지 않고 머릿속을 단순하게 합니다. 네 번째의 경우에는 자신의 마음이 힘들어서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경

선교와 섬김

우가 있습니다. 큰 고민이 있거나 여러 스트레스 상황으로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할 때,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위로도 도움이 되지 않고 세상에 혼자만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의 발달로 통신수단과 방법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1세대 SNS는 1촌 중심으로 개인적인 관계와 개인 생산 콘텐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싸이월드) 2세대 SNS는 짧은 콘텐츠 서비스로, 관계와 실시간 소통을 이야기 합니다. 시공간적 관계에서 벗어나 모바일 중심으로 서비스 합니다.(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3세대 SNS는 상호간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활발히 교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와 커뮤니티케이션을 말하는 디지털큐레이션을 말합니다.(핀터레스트 등)

최근에 소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말을 주고받는 [대화]에서 막히지 않고 잘 통하는 것, 뜻이 서로 통해서 오해가 없음을 말하는 [소통]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둘의 대화만으로는 부족하여 말하고자 하는 뜻이 서로 오해가 없을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소통을 원하고 있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내가 원하는 소통이 내 생각을 말하는데 그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상대방이 움직여줄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듣는 것 보다는 내가 하는 말, 나의 뜻대로 되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신명기서 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제자들의 기록에서도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현재의 시대에 지혜 있는 사람은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와 말씀, 기도와 찬양, 교제를 통해서 듣는 훈련을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최기찬 전도사



## 한주간의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

< 창세기 50장 19절 말씀 >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마음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 나의 가는 길

기도 : 이충환 집사

성경 : 창세기 50장

제목 : 이스라엘과 요셉이 무덤에 묻히다

1. 내용: 이스라엘과 요셉이 조상들이 가는 길로 가다. (What)

<문단구분>

1~11절 이스라엘의 장례행렬

12~21절 형들의 간청

22~26절 요셉의 유언

2. 의미: 성도의 죽음은 자신에게서 끝나지 않는다. (Why)

1) 야곱이 선택한 장례식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것이다.

2) 형들은 40년간 죄책에 시달리고 있었다.

3) 요셉도 하나님의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3. 적용: 신앙의 유산을 자손들에게 남기자 (How)

1) 보이지 않는 신앙의 유산을 자손들에게 남기자

2)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욱 분명하게 가지자

성서일기

## 입학을 앞두고

안녕하세요. 푸른꿈사랑방 정아영입니다.

저는 어린이 때 매번 멋쟁이학교에 가고 싶었는데, 이번에 입학하게 되어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엄마 아빠가 멋쟁이 선생님이시고, 오빠 언니가 멋쟁이라 모두 여행에 가면 혼자 남아서 조금 쓸쓸했는데 이번에는 저도 같이 가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멋쟁이에서 언니 오빠들이랑 재밌게 잘 지내고 싶습니다. 또 새로 오는 친구와도 잘 지내고 싶습니다. 수업도 열심히 듣고 동아리 활동과 부서활동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저는 언니들과 함께 생활하는 생활관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어린이 때는 집과 학교만 다녔는데 이번에는 아예 학교에서만 생활하는 것이니 기대가 더 됩니다. 언니들과 늦은 시간까지 방에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아침에 같이 일어나는 경험도 하고 싶습니다.

아침운동이 가장 힘들고 귀찮겠지만 그래도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하면서 열심히 운동을 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성서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림 성서일기가 아닌 글 성서일기는 처음 써봐서 어렵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멋쟁이학교에서 지내는 동안 잘 지켜주시고 인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사랑방공동체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멋쟁이학교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푸른꿈사랑방 정아영 학생

지체들의 삶



##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창세기 50 : 15 - 21 설교자  
 성가대 찬양 나 주님의 기쁨되기 원하네(113) 새작사랑방  
 설 교 “ 성숙한 믿음의 단계, 용서 ” 정태일 목사

###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서병욱 임진숙 / 봉헌위원 : 정연갑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 배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태일 목사

에베소서 4 : 30-32 인도자  
 23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마태복음 6 : 12-13 인도자  
 135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공동기도문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새해에 창세기를 읽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  
 용서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 성숙한 믿음의 단계, 용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다.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양갓음을 할까 염려하며 불안해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요셉에게 아버지의 유언을 전하며,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간청했습니다.<17-18>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며 그들의 죄를 용서하였습니다.<19>

성숙한 믿음의 단계, 용서. 창세기는 만물의 시작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며,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족장들의 생애를 통해서 믿음의 세계를 단계별로 성숙시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창세기의 마지막 장이며, 마지막 족장 요셉의 말년에 관한 기록 중의 하나입니다. 즉 성숙한 믿음의 단계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서 그 중심은 '용서'라고 전합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요셉은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신앙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숙의 구체적인 내용, 용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공동체가 되십시오. 그리고 용서의 근거,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공동체가 되십시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태일 목사 / 기도 : 이현숙 집사



##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 꾸러기학교

15일부터 봄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2025학년도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따라 온 꾸러기들과 형제들이 모두 모여 두 시간 정도 함께 놀았습니다. 새로 입학할 친구도 와서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가위로 오리고 색종이를 접으며 평소처럼 놀기도 하고 애니메이션도 함께 보았습니다. 영상을 보다가 새로 입학할 동생이 무서워하여 이제 꾸러기의 만연기가 되는 아름이가 옆에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꾸러기를 따라온 동생들은 선생님 무릎에 앉아서 보았습니다. 어린이 언니들도 있어서 인사를 나누고 나중에 학교차 함께 타고 다니자 약속도 했습니다.

지음이에게 꾸러기에서 제일 큰 오빠가 되는데 학교에서 무얼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지음이는 이어람 선생님이랑 아름이랑 축구도 많이 하고 하늘을 날아서 졸업여행도 다녀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전에 종이접기를 하다가 어려우니 더 크면 하자고 했던 것들을 다 접어서 사물함을 가득 채우겠다고 합니다. 꾸러기에 남자는 혼자 남아 좀 마음이 쓰였는데 지음이는 새학기를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 교사 : 정승희 >

### 어린이학교

어린이학교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 정비 중입니다. 솔직히 '정비'라기 보다는 '공사'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동그라미를 도서관으로 탈바꿈시키는 일에 많은 인력과 시간, 그리고 수고가 있었는데, 어린이 도서관에 그렇게 책이 많고 또 책장이 그렇게 많은지 이번에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불과 몇 년 전에 도서 정리 작업을 맘먹고 시행해서 방학 내내

배움과 가르침

책마다 일일이 도서청구기호를 만들고 라벨 작업을 했던 적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도서관에서 동그라미로 책과 함께 책장까지 이동시키느라 그 때와는 또 다른 품이 많이 들었습니다. 책이 많아서 동그라미만으로는 공간이 부족해서 네모하나에는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을, 네모 둘에는 '자연과학, 기술과학'을 분산해서 배치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동그라미도서관 완공률이 100%는 안 됐지만 80% 이상은 되었고, 3월 3일 개학 전에는 당연히 100% 완성될 예정입니다.

어린이학교의 도서관 이전을 위해 애쓰신 분들의 이름을 이 글에 쓰지는 않지만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여러 분들의 수고 덕분에 어린이 친구들에게 아늑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공동체 식구들도 아브라함 장막에 있는 동그라미로 놀러 오세요. 이제는 바닥에 전기 판넬도 깔려서 따뜻하고, 책장이 예쁘게 배치돼서 아늑하답니다.

< 교사 : 전선희 >

### 멋쟁이학교

일주일간의 봄방학은 많은 멋쟁이들에게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끊임없이 새학기를 위한 준비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구성원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2025년은 어떠할지 머릿속에 띄워보면서 말이죠. 그 와중에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이 학교에 찾아와 짐을 나르거나 페인트칠을 하는 등, 함께 작업하며 공동체학교들을 도와주는 멋진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긴장감이 더해지는 나날들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있는 입학식의 주인공인 신입생들은, 선배들이 그러했듯이 떨림이 더해진다는 소식이 들리니 말이죠. 함께 즐겁게 지내면서 낯설음을 이겨낼 학교생활을 기대해봅니다. 내일부터는 속초로 개강여행을 떠납니다.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주시고, 많은 응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교사 : 이어진 >



## 교회 마당에서 자란 아이들

지난겨울, 긴 방학에 도움이 될까 해서 어린이학교 학부모회 이름으로 겨울방학 특강을 기획했습니다. 두 주간 수업을 열어 어린이들이 학교에 와서 친구도 만나고 공부도 하도록 한 것이지요. 특강을 위한 선생님은 어린이학교 졸업생이자 멋쟁이학교의 언니, 오빠들로 섭외를 했습니다. 진심이, 시우가 영어 선생님이요 흥인이, 아인이가 수학 선생님 그리고, 나영이가 역사 선생님이요 수고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또 학부모 중 한분은 어린이들에게 탁구를 가르쳐주고 싶다고 하셔서, 탁구 강좌도 열리고, 어린이들에게 간식을 해주고 싶다는 학부모도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시작되는 특강 첫 날, 눈이 평평 내리기 시작해 마음이 조마조마 했지만 무사히 모두 학교에 잘 도착했고,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두 주간 여섯 번의 수업을 하고, 역사 수업을 한 친구들은 서울로 체험학습까지 다녀왔습니다. 수고해준 선생님들에게는 소정의 강사료가 지급되었는데, 아이들과 수업하며 젤리, 과자 등 간식을 준비한 선생님도 있고, 마지막 날 머리띠, 키팅, 목도리 등 선물을 준비한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수업도 열심히 듣고 잘 따라줘서 너무 예쁘다는 말과 보람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장막에 가서 책 정리를 도왔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이 수리가 필요해 거기 있던 책들을 옮기게 된 것인데, 이안이와 진의가 와서 큰 힘을 보탤했습니다. 책장과 책상을 배치하고, 불필요한 가구들을 옮기고, 책들을 꽃아 넣는데, 힘 있는 청년들이 움직이니 일이 척척 진행되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어느 교회 어른께서 교회 마당을 밟고 자란 아이들은 하나도 빠짐 없이 바르게 잘 자란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작은 일을 같이 해봐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그 안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 마음보다 더 큰 마음으로 일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공동체가 사랑으로 키워낸 청년들이 공동체를 또 사랑으로 성장시켜 나갈 것 같습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노미현 사모

## <수요 정오기도회>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 송 : 288장, 436장

성 경 : 시편 1편

말 씬 :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 박해 받는 인도 기독교를 위해 >  
인도 북동부 마니푸르주는 쿠키족과 메이테이족 집단 간의 충돌로 기독교인과 교회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곳이다.  
인도는 한국오픈도어선교회가 발표한 '2024 월드와치리스트'에서 전 세계 기독교 박해 순위 11위 국가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 개척자들을 위해 >  
샘터: 지난 18일에는 샘터에서 감사의 밤이 진행되었고, 아체와 로HING야, 제주의 2024년 활동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로HING야(미얀마 소수부족-방글라데시 거주): 중2학년과 3학년의 새학기 시작, 책, 노트, 펜슬을 받고 새로운 다짐으로 시작  
아체(인도네시아): 작은 평화 도서관 프로젝트
3.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
  - 1) 사랑방공동체 정기총회
  - 2) 개학을 준비하는 각 학교들을 위해, 멋쟁이학교 입학식 및 개강식

## <생활공동체 소식 >

공동생활 식구들은 새학기를 준비하는 일들로 각 영역에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자녀들도 참여하여 어른 한 몫 이상의 일을 너끈히 해내는 모습을 보니 흐뭇합니다.

새롭게 공동생활에 함께하게 된 윤호중집사님 가정이 이사를 잘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한국의 공동체를 경험하기 위해 온 파트릭 청년이 토요일부터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식구들이 함께하는 공동생활은 어떤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이 넘칠까 너무 기대가 됩니다.

< 장영미 전도사 >